

##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(안)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9. 6  
발 의 자 : 오인영 의원의 9인

### 1. 주문
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0번지에 소재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현재 양천구의 생활쓰레기만을 소각 처리하고 있는 바,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, 다이옥신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인하여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고자 함.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은 '96년 3월에 400톤 처리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 시설 가동률이 47% 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,
- 나. 서울시 소유시설인데도 양천구의 쓰레기만을 처리함으로써 여기서 생기는 운영적자를 양천구민이 아닌 서울시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,
- 다. 양천구청과 양천구민은 시설에서 가장 가까이 인접하여 소각 처리시 발생하는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등포구민을 위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.

##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에관한촉구건의문

서울시에서 '96년 3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와 자치구간 갈등으로 완전 가동을 못하고 47%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천자원재활용시설과 직접 인접해 있는 우리 영등포구민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우리 구의회 21명 전 의원은 41만 영등포구민과 함께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한다.

- 1. 서울시는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때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 구청장 및 주민협의체와 「합의」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된 서울시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.
- 2. 양천구청과 양천구민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쓰레기 반입을 반대만 하지 말고 피해 당사자인 영등포구와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방하라.
- 3. 지역편의주의에 편승하여 직접 피해 당사자인 영등포 구민에게 개방할 수 없다면 서울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으로 인한 정신적,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,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즉시 이전하라.